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추석 위령미사 신청

9월 8일(일) 주일에 추석 위령미사가 있습니다. 부모님, 가족 그리고 친지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제41차 남성 꾸르실료 교육

일시 : 10월 24일(목) - 27일(일)

장소 : 뉴턴 수도원

문의 : 신부님 혹은 윤모니카 회장

● 성가책 판매

소 : \$25, 대 : \$30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19년 성지 순례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장소 : 터키, 그리스 12일

날짜 : 9월 30일(월) - 10월 11일(금)

비용 : 3,195불 (필라델피아 출발)

문의 : 윤모니카 회장(254-289-1682)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관우 바오로 부제, 이길자 데레사, 배향숙 루시아, 한 베드로, 이매향 도나타>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모임

1) 글로리아 구역 : 9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에 안우풍 부르노 형제님 댁에서 구역 모임과 미사가 있습니다.

<안우풍 부르노 형제님, 오세환 라파엘 형제님 주관>

2) 비오 구역 : 9월 14일(토) 오후 7시 최영숙 에스터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3) 마틸다 구역 : 9월 15일(일) 미사 후 '짱가네'에서 있습니다. <신용철 마태오 형제님, 신선희 카타리나 자매님 주관>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알립니다!

*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제노베과 구역입니다.

*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마틸다 구역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제노베과 구역입니다.

연중 제22주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2019. 9. 1 (다해) 제1506호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Mission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사목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낮 12시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나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단체모임 안내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뜨레아 :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사목회 : 추후 공지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2번 주 하느님 크시도다
제1독서	집회서 3, 17-18. 20. 28-29
화답송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제2독서	히브리서 12, 18-19. 22-2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
복음	† 루카 14, 1. 7-14
봉헌성가	219번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성체성가	156번 한 말씀만 하소서
퇴장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오늘의 묵상

한번은 고 김수환 추기경이 성체 조배를 마치고 나오며 비서 신부의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다고 합니다. 비서 신부는 이에 감동을 받아 더 열심히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그 어떤 선물보다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집회서의 저자는 “애야, 네 일을 온유하게 처리하여라.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보다 네가 더 사랑을 받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큰 선물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겸손한 작은 행동 하나에도 크게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받으려면 모든 일을 온유한 마음으로 하고 화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동으로 열 번 잘하더라도 한 번 화를 내면 그동안의 수고가 쓸모없게 됩니다.

지위가 높으면서도 겸손하면 더 존경을 받습니다. 추기경이 비서 신부의 신발을 정리해 주었다고 하면 듣는 이도 추기경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오늘 독서에서도 “네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도 사랑을 받습니다. 이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느님께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말도 됩니다. 사랑은 주는 만큼 받는 것이기에 온유하고 겸손하면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제1독서에서 말하듯 하느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이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끝자리에 앉으라고 충고하십니다. 그러면 이웃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이들은 언젠가는 보답하게 될 터인데, 그럴 때에 선물을 준 나는 저절로 받들어지고 높아지게 됩니다. (전삼용 요셉 신부)

우리들의 기도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연중 제22주일 9월 1일	연중 제23주일 9월 8일	연중 제24주일 9월 15일
제1독서	황선동 스테파노	하국일 암브로시오	
제2독서	김희동 프란치스코	김재숙 제노베파	황선동 스테파노
봉헌자	권선용, 권명자	황선동, 황태영	김경훈, 이문경

우리들의 주일정성

< 8월 25일(일) >

봉헌금	\$456.00	
교무금	\$20.00	권수희(8)
예물봉헌	\$110.00	
Total	\$586.00	